

담화표지 {그러-}형의 기능

김금하, 최재웅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keum_ha@lycos.co.kr jchoe@korea.ac.kr

Function of Discourse markers *geuleo*-form

Keumha Kim & Jae-Woong Choe
Department of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요약

본 고에서는 청문회 전사자료를 대상으로 한국어 담화에서 사용되는 {그러-}형태 담화표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의 분포 및 기능을 분석하였다. 우선 2절에서 담화표지에 대한 정의와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또, 담화표지가 담화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담화분절(segment)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3절에서는 대화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담화표지에 대한 실례를 찾아, 담화표지가 대화 화제와 관련하여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담화 계획 유형을 제시하였다. 5절에서는 담화분석에의 활용을 위하여 본 연구의 일환으로 일부 시도한 담화 태깅(tagging)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발화문 사이의 진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담화표지의 세부적인 담화기능을 살펴볼 수 있었다.

1. 서론

본 고에서는 국회 청문회 전사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담화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담화표지(DM: discourse markers)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¹⁾. 또한, 담화표지가 담화 화제와 관련하여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전사 자료는 1999년 8월에 있었던 <국회 옷로비 청문회 자료>를 사용한다. 청문회 진행에 대부분 중복(overlap)의 상황이 거의 없고, 순서교대(turn-taking)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추이적정지점(transition relevance place: TRP)을 가지고 있어, 대화전개가 명확하게 구분 될 수 있음을 이점으로 보았다. 대화참여자

로는 청문회 진행자인 법사위 청문회 위원장과 위원장 대리인, 질문을 위한 여러 위원들, 증인들이 있다. 발화문 대부분이 1:1의 예측 가능한 인접쌍(adjacency pair)으로 볼 수 있는 질문/대답의 유형을 가진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전사자료의 기본 단위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지정한 의원 한 명이 질문을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마지막 응답이 끝나는 부분까지로 하였다. 각 단위별로 대화참여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담화표지 중 분포 환경이 높은 {그러-}형 담화표지위주로 분석하였다.²⁾ 이 연구로 대화체에서 앞 발화로부터 다음 발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의 다양한 담화적 연결관계를 구체화하는 담화표지의 기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담화 표지의 주요 기능은 내용의 전환, 유지, 확인, 수정 등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

1) 전사자료로 사용된 청문회대화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담화표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러니까/그런데/그러면}이외의 {그러-}형은 제외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리고/그래서}도 같은 형으로 보고자 한다.

2) 참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4호의 전사된 자료에 171,368어절 중 {그러-}형태를 가지고 있는 담화표지의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었다.

이와 같은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적 으로나 전산학적으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발화 또는 담화 사이의 연결사 역할을 하는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는 담화구조를 분석 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화표지 {그러-}형이 보이는 [연속, 원인, 전환, 조건]과 관련된 특징들은 담화의 확인, 수정, 전환, 유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자연스러운 화제 이동을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2. 담화표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담화표지의 정의

Fraser(1990)에 의하면 담화표지는 어휘적/문법적 범주와는 달리 선행담화와 후속담화 사이의 연속적인 담화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담화의 일관성(coherence)에 기여하는 화용적 범주이다. 이와 같은 담화표지로는 and, so, but, anyway 등이 있다. 이들은 담화에서 주로 발화문의 첫 부분에 사용되어 연속적인 담화관계를 보여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문장과 잘 통합되지 않고 문장의 개념적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문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편이지만, 담화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2 담화표지에 대한 선행연구

Levinson(1983)은 담화표지를 하나의 부류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영어뿐만 아니라 대부분 언어에서 발생하며 선행담화와 후속담화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기록일	8월23일	8월24일	8월25일	합 계 (총:3446)
그리고	198	239	193	676
그러니까	137	132	161	430
그래서	210	236	270	716
그런데	209	219	230	658
그러면	334	298	334	966

담화표지 용어를 도입한 Schiffrin(1987)은 자유로운 면접대화에서 나타난 담화표지의 발생위치와 그들이 지닌 특별한 기능들에 주목했다. 그녀는 담화표지가 담화맥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합시킴으로써 담화의 일관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Blakemore(1987)는 '담화접속어'(discourse connectives)라는 제목 하에 담화표지가 추론적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담화의 일관성에 기여한다고 제안한다.

Fraser(1990)는 기존의 담화표지에 대한 논의들을 집약해서 담화표지가 한 언어의 문법 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언어적 범주로 잘 정의된다고 제안한다.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로 신현숙(1989)을 들 수 있다. 그 연구에서는 '담화대용표지'의 범주아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만}의 담화 기능을 담화자질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래서}	{+ 연속}	{- 거리}
{그러니까}	{+ 연속}	{+ 거리}
{그러나}	{- 연속}	{- 거리}
{그렇지만}	{- 연속}	{+ 거리}

여기서 [연속]의 의미는 일어난 사건의 연속·상태의 연속·심리작용의 연속 등을 뜻하며, [거리]는 형식의 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시간거리·심리거리를 포함한다. 또한 신현숙(1990)에서는 {그래}를 포함하는 담화표지들, 즉 {그래서/ 그래서말이야/ 그래요/ 그래잉/ 그래그래/ 안 그래/ 응 그래}의 기능을 추상의미와 구체의미로 세분화하였는데, 추상의미는 [담화대용 + 담화연속]으로, 구체의미는 [의문]↔[단정], [요구]↔[시사]로 분석하였다.

이현호(1997)는 텔레비전 대담프로그램 대화체에서 관찰된 담화표지를 연구하였다. 각 부대화의 서두위치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근까/ 근데/ 저기}등과 복합담화표지 {인제 그러니까/ 근데 그/ 그래서 인제}등의 사례를 열거하여, 부 대화와 담화표지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2.3 담화분절과 담화표지

담화표지는 담화에서 단락과 단락 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 지어 준다. 그래서 담화표지만으로도 담화구조를 보일 수 있다. 먼저, 아래의 담화 조각(discourse fragment)을 보면, 이 단문은 E가 '잔디 깎는 기계'를 조립하는 A를 돕는 동안 나누는 대화의 끝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다(Allen 1995: 503).

- a: E: So you have the engine assembly finished.
- b: Now attach the rope to the top of the engine.
- c: By the way, did you buy gasoline today?
- d: A: Yes, I got some when I bought the new lawn mower wheel.
- e: I forgot to take my gas can with me, so I bought a new one.
- f: E: Did it cost much?
- g: A: No, and I could use another an way to keep with the tractor.
- h: E: OK.
- i: .Have you got it attached yet?

위 연속적인 담화에 화제가 변경되었음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E가 A에게 명확하게 'By the way'라는 어구를 사용하여 말함으로 c에게 새로운 화제를 이야기하고자함을 암시한다. Allen(1995)은 이를 담화 단서표현(CP: cue phrase)이라고 하며 그러한 어구가 담화에서 화제변화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³⁾ 이와 같이 담화의 흐름을 밝히는데 화제, 분절 등의 개념이 주요한 역할을 하며 담화표지는 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 c)문장에서 g)문장까지는 '밭줄을 묶는 것'과 연관된 상호작용을 암시하는 하위대화(부대화, subdialogue)⁴⁾이다. h)에서 E는 현재 화제를 'OK'라는 어구를 사용해서 끝마친다. 따라서, i)의 해석에서 앞의 문맥과 관련된 사항은 b)에 근거를 둔다.

이처럼 담화는 동일한 화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담화분절(segment)이 하위의 분절을 포함할 수 있다.

3. 대화체에서의 담화표지

3) 이현호(1998)에서는 Allen이 말하는 'Cue phrase'를 단서표현(CP)이라 번역하고, 넓은 의미의 담화표지로 보고 있다. 여기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따르겠다.
4) 하위대화는 대화를 이루는 작은 단위이다.

3.1 담화구조에서 담화표지의 기능

3.1.1 {그리고}

{그리고}는 행동의 계속, 현재 상황, 동일한 화제의 전개 등을 말하는 경우로 연속의 의미 기능을 보인다.

- 1) 19 함석재 위원: 아니, 12월14일 63빌딩관기념회장에 배정 숙씨를 만난 일이 있으시지요?
- 20 증인 이형자: 예.
- 21 함석재 위원: 그리고 배정숙씨에게 그 다음날 공항터미널 다방에서 좀 만나자고 증인이 특별히 부탁을 했지요?
- 22 증인 이형자: 예.⁵⁾

예문 1)은 함석재 위원이 질문을 하고, 그 사이에 증인 이형자의 대답하는 형식이다. 대화 내용을 살펴 보면, 발화문 19와 21은 모두 배정숙과의 만남이 있었던 날의 행동을 화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의 연결관계를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발화문 21의 시작에 도입된 {그리고}는 바로 이러한 연속의 특질을 지니는 담화표지다.

{그리고}에는 또 다른 담화기능도 있다. 다음 예문 2)를 보면, {그리고}가 전환의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59 함석재 위원: 그런데 그것 가자간 다음에 연성희씨가 먼저 전화를했습니까, 증인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 60 함석재 위원: 이렇게 이렇게 명크코트를 보냈으니까.....
- 61 증인 정일순: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 62 증인 정일순: "사장님, 제가 안 산다고 그랬는데 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사모님....."
- 63 함석재 위원: 알았습니다.
- 64 함석재 위원: 그리고 증인은 12월19일 오후에 명크코트 여러 벌하고 외제코트 이런 것을 또 연성희씨 차에 실어서 보낸 일이 있습니까?⁶⁾

발화자 함석재 질문의 진행이라는 면에서는

5) 제20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8월 25일 대화를 전사, (pp. 18-22).
6) 제20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8월 25일 대화를 전사, (pp. 91-96).

발화문 64의 담화표지 {그리고}가 연속의 기능을 보인다. 그런데, 발화문 64 이전까지는 밍크코트 문제로 인한 전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발화문 64에서는 밍크코트를 보낸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즉, 밍크코트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밍크코트와 관련된 전화이야기와 밍크코트 보낸 것을 확인하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쓰인 {그리고}는 '밍크코트'라는 화제의 연속기능을 보이는 동시에, 하위화제 '전화'로부터 다른 하위화제 '보낸 날짜'로의 전환기능도 보이고 있다.

3.1.2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 또는 추상적인 시간이나 심리작용의 연속을 인지하는 등에 사용된다.

- 1) 54 함석재 위원: 2,400만원 옷값 대납을 요구 받은 일이 있으시지요?
- 55 증인 이형자: 예.
- 56 함석재 위원: 그리고 그 을 하셨지요?
- 57 증인 이형자: “준비를 할까요?” 그랬더니 “준비하세요” 그랬습니다.
- 58 함석재 위원: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증인의 비서한테 2,200만원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⁸⁾

- 2) 170 박헌기 위원: 어제 배정숙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TV를 보셨지요?
- 171 증인 연정희: 예, 보았습니다.
- 172 박헌기 위원: 어떻게 느꼈습니까?
- 173 증인 연정희: 본인이 한 말을 제가 한 것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 174 박헌기 위원: 그러니까 배정숙씨의 어제 증언은 위증이다 이렇습니까?
- 175 박헌기 위원: 그러니까 배정숙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면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에요?⁹⁾

예문 1)에 증인 이형자가 들은 내용인 “준비하세요”가 어떤 의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증인이 대납을 해 주기 위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의미한다. 이를 함석재 의원은 증인이 옷 대납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음으로 보아, 원인의 담화기능을 보이는 {그래서}로 시작되는 발화를 가진다. 예문 2)의 발화문 173에서는 증인 연정희가 증인 배정숙이 위증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문장으로 다음 발화자인 174에 박헌기 위원이 “그러니까 배정숙씨의 어제 증언은 위증이다”와 같은 내용으로 유추하고 있다. 또 175에서도 “그러니까 배정숙의 증언이 위증이 아니면 증인(延貞姬)의 증언이 위증이에요.”에 증인 연정희의 발화문 173을 전제로 하여 후행 문장의 원인이 됨을 자연스럽게 보인다.

3.1.3 {그런데}

{그런데}는 선행하는 문장과 후행 문장의 내용에 새로운 계기등을 제시하는 전환의 담화기능을 보이고 있다.

- 46 조찬형 위원: 지금 배정숙씨는 2,400만원 옷값 대납요구를 안 했다고 합니다.
- 47 증인 이영기: 그런데 위원님이 왜 제 사감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 48 조찬형 위원: 그런 사감을 국회에서 아무렇게나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¹⁰⁾

위 예문에서 이해되는 것처럼, 조찬형 위원의 발화는 옷 대납요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발화문 47에 증인 이영기가 {그런데}를 사용함으로써 대화의 화제가 ‘옷 대납요구’에서 증인 이영기의 ‘사감’으로 인한 문제를 논하는 것으로 변경됨을 보인다. 이처럼 {그런데}는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된 내용이 전환되어 새로운 계기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보인다.

3.1.4 {그러면}

{그러면}은 추측이나 가정적인 조건의 의미기능을 가진다.

- 7) 신현숙(1989)에서는 {그래서}가 지니고 있는 {그래}가 {그리해}와 {그러해}의 중화형으로 생각되므로 {그래서}표지도 {그러-형식과 관련지을 수 있다고 본다.
- 8) 제20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8월 25일 대화를 전사, (pp. 18-22).
- 9) 제20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8월 24일 대화를 전사, (pp. 40-47).

- 10) 제20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8월 24일 대화를 전사, (pp. 268-270).

- 1)
- 51 박찬주 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판매대장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되는 경우나 출고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모조리 기재가 되지요?
- 52 증인 정일순: 예, 당연하지요.
- 53 박찬주 위원: 또 입고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판매대장이나 마찬가지로 입고대장이 있습니까?
- 54 증인 정일순: 예.
- 55 박찬주 위원: 그러면 거기를 보면 며칠날, 가령 연정희 씨한테 팔았느냐 아니면 그냥 연정희씨 모르게 실어 보냈느냐, 그것은 상부에는 안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연정희씨한테 며칠날 링크코트가 몇 벌 정도가 샀는지 그것은 알 수 있겠네요?
- 56 증인 정일순: 다 나오니까.
- 57 박찬주 위원: 좋습니다.
- 58 박찬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연정희씨는 반환했다고 하는데, 반환했는지 안 했는지는 앞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는 합니까마는 연정희씨가 며칠날 링크코트 몇 벌을 라스포사에 반환했는지 그것도 입고대장을 보면 다 기재가 되어 있겠네요?1)

예문 1)은 박찬주 위원의 질문상에 판매대장과 입고대장에 기록된 사항들을 증인 정일순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발화문 58 박찬주 위원이 "그러면 나중에 연정희씨는 반환했다고 하는데, 반환했는지 안 했는지와 (중간생략) 며칠날 링크코트 몇 벌을 라스포사에 반환했는지 그것도 입고대장을 보면 다 기재가 되어 있겠네요?"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질문자가 위와 같은 발화를 제시하는 조건이 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그러면}은 전환의 의미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위대화에서 하위 대화로 새로운 화제가 제시될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 24 김학원 위원: 그러니까 배정숙씨는 옛날에 한번 들었다가 12월16일 처음 들었다는 취지입니까?
- 25 증인 김봉남: 그렇지요.
(중간생략)
- 30 김학원 위원: 나라패션에 몇년 계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정희씨가 그때 들고 12월16일 처음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 들었습니까?
- 31 증인 김봉남: 아니요. 그 사이에는 안 오셨다가 제

11) 제20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8월 25일 대화를 전사, (pp. 86-91).

가.....

- 32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날 연정희씨가 브라우스 한 점 40만원, 투피스 한 벌 80만원 해서 120만원어치 샀지요?
- 33 증인 김봉남: 예.12)

3.1.5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3장에서 알아본 {그러면/그런데/그래서/그리고/그러니까}의 의미분석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담화표지	연속	원인	전환	조건
{그리고}	+	-	+	-
{그러니까/그래서}	+	+	-	-
{그런데}	-	-	+	-
{그러면}	+	-	+	+

3.2 담화분절에서 담화표지의 역할

지금까지 알아본 담화표지의 기능을 가지고 담화 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담화분절로 보이겠다.13) 아래의 내용은 1999년8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74쪽에서 277쪽사이의 일부분을 담화 분절한 것이다.

· 대화참여자:

- ①위원장 목요상 ②김학원위원 ③증인김봉남

SEG 2(18-42) : 김봉남 신문
{0}연정희와 배정숙의 김봉남
가게 거래 내용
{그래서}만나게 된 동기

SEG 2.1(24-31)

{0}짧은 신문시간 강조

{그러니까}연정희와 배정숙 방문날짜 확인

- 12) 제207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중 8월 24일 대화를 전사, (pp. 274-277).
- 13) 우리말 대화체에서 담화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되풀이'와 '상황표지'로 담화분절을 하였다. 이 표현들은 노석기(1989)에서 인용했다. 여기서 '되풀이'의 기준은 반복되는 어구나 단어를 사용하여 화제변동이나 주제어중심으로 단락을 나누었고, '상황결속'은 대화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담화분절을 만들며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앞의 두 경우는 담화분절에서 {0}으로 나타냈다.

SEG 2.2(32-35)
 {그러면}12월16일 연정회 옷 구입 가격

SEG 2.2.1(34-35)
 {그리고} 12월16일 배정숙
 옷 구입목록 확인

SEG 2.3(36-42)
 {그런데}그린색 원피스와
 자켓양상블구입확인

SEG2.3.1(38-39)
 {Ø}증인답변에 불만
 {그런데}새로운구입목록

SEG 3(43 - 60)

{Ø}심성자 신문

위의 내용은 SEG2에서 증인 김봉남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에 들어감으로 볼 수 있다. SEG2.1은 증인의 발화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로 시작되는 발화문 24에서 앞의 발화문 20과 연속되는 질문을 다시함을 보인다. 발화문 32에서 SEG2.2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그러면}이 12월16일 방문날짜에 일어난 일에 관한 연속의 의미기능과 동시에 연정회가 12월16일 옷가게를 방문한 사실과 그 방문 목적을 조건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분절의 기준으로 SEG2.3의 {그런데}는 전환의 의미기능으로 새로운 화제인 그린색 원피스와 자켓에 관한 도입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4. 담화계획

본 고에서는 담화표지를 대화참여자가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일정한 의도, 즉 담화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표층신호로 사용한다. 담화계획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화제, 대화의 초점, 대화참여자의 의도 등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서는 기존의 담화 계획유형을 부분적으로 통합하여 제시한다.¹⁴⁾

14) 이현호의(1997)에 의한 한국어 담화 계획 유형은 크

4.1 세부정보의 확인과 수정

1) 세부 정보의 확인

추가, 확인, 배경 정보의 제공에 관한 대화를 <세부 정보의 확인>의 과정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이는 질문자들의 진행되는 방향이 '옷로비 활동'사실에 대한 정보의 추가, 확인, 정보의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세부 정보의 수정

청문회 대화의 경우 일반적인 대화처럼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수정을 가한다거나 자신의 발화를 직접 수정하는 것으로 정보를 확인한다.

4.2 화제의 전환과 유지

화제를 유지하느냐 전환하느냐 하는 기능은 대화상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담화계획유형을 <화제의 전환>, <화제의 유지>로 단일화했다.

4.3 담화 계획의 유형

◆한국어(청문회 대화) 담화 계획 유형 제안

- 세부정보의 처리 : 1)확인/ 2)수정
- 화제의 전환
- 화제의 유지

5. 담화태깅

앞에서 논의한 담화 정보를 구체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정보를 발화별로 태깅(tagging)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태깅방식에서 담화분절과 화제유형의 정보를 위한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SP/: 질문자(Q1)과 증인(W1)으로 표기

◎/DM/: 담화표지의 존재여부와 그 담화표

지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세부정보의 처리>는 추가/ 확인/ 수정/ 배경정보의 제공으로 나눈다. 둘째, <화제의 전환>은 상위대화→부대화/ 부대화→상위대화 유형이 있다. 끝으로 <화제의 유지>는 화제의 연속성 유지/ 상황 진행과정의 제시/ 주도권의 전환의 유형을 보인다.

지가 화제의 유형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담화기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¹⁵⁾

◎/KS/: 한국어 발화문을 기록

◎/SA/: 발화문의 화행의 기능

◎/DS/: 담화표지의 기능과 무표적 담화표지의 기능을 중심으로 담화 분절을 보임.

· 담화참여자:

① 김학원의원(Q1)/ ② 증인김봉남(W1)

/SA/ Q1
/KS/ 나라패션에 몇년 계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정희씨가 그때 돌르고 12월16일 처음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번 들었습니까?
/SA/ Question
/DM/ [none, c]
/DS/ [2.1]

/SA/ W1
/KS/ 아니요. 그 사이에는 안 오셨다가 제가.....
/SA/ response
/DM/ [none, r]
/DS/ [2.1]

/SP/ Q1
/KS/ 그러면 그날 연정희씨가 브라우스 한 점 40만원, 투피스 한 벌 80만원 해서 120만원어치 샀지요?
/SA/ Question
/DM/ [그러면, s]
/DS/ [2.2]
(중간생략)

/SP/ Q1
/KS/ 그리고 배정숙씨가 30만원어치 브라우스 하나 사주었지요?
/SA/ Question
/DM/ [그리고, S]
/DS/ [2.3]¹⁶⁾

지금까지의 태깅방식을 실례에 적용해 보았다. 이를 통해 담화상의 화제이동에 연속, 원인, 전환, 조건의 의미기능을 보이는 담화표지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런 담화표지는 담화분절을 보임에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담화의 이해를 돕는다.

6. 결론

15) /DM/은 [담화표지, 담화 계획의 유형]의 순서로 기록한다. 그리고 담화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none]로 표기한다. 담화 계획의 유형은 화제의 전환(shift)은 [s]로 화제의 유지(retain)는 [r], 화제의 확인(certification)유형은 [c]로 하며, 끝으로 화제의 수정(modification)의 경우에는 [m]으로 나타낼 것이다.

16) 1999년 8월 24일 274쪽에서 277쪽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내용의 일부에 대해태깅 방식을 적용.

담화는 여러 화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화제의 결속관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것이 담화표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담화에 사용되는 {그러-}형태인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을 중심으로 담화표지의 의미 기능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담화구조에 있어 담화표지의 [연속, 원인, 전환, 조건]으로의 담화기능이 화제 전개에 확인, 수정, 전환, 유지의 담화유형에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또한, 위와 같은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담화분절에서 화제 이동의 시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예약, 상담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한 대화 수행이 가능한 프로그램 상에서 발화되는 문장 생성과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 [1] 강범모(1999), 한국어 텍스트장르와 언어특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2] 노석기(1989), 「우리말 담화의 결속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박성현(1996), 「한국어 말차례체계와 화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4] 신현숙(1989), 담화 대응 표지의 의미 연구, <국어학>19, 국어학회.
- [5] 이현호(1997), 우리말 방송 대화의 담화·화용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담화와 인지> 5, 담화·인지언어학회.
- [6] 이현호 외(1998), 한국어 상위대화 복귀시점의 표층표지 및 생략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한국인지과학회.
- [7] Allen James(1995),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the Benjamin/ Cummings Publishing Company, Inc.
- [8] Blakemore, Diane(1987), Semantic constraints on relevance, Oxford: Blackwell.
- [9] Fraser, Bruce(1990), An approach to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14: 383-395.
- [10] Levinson, Stephan(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1] Schiffrin, Deborah(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 Combridhe University Press*.